

밴드에서 퍼 옴

흐르는 강물처럼

2022년 7월 6일 오전 7:44:19 읽음

<생활속의 기록>

놓친 버스 앞질러 가 타기



우리 집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210 번은
배차 간격이 평일에는 15 분 정도이고
공휴일이나 일요일엔 20 분이 넘는다.



우리집에서 탁구장이 있는 서로터리까지는
버스로는 10 분 걸어서 가면 25 분이 걸린다.
따라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
210 번 버스를 눈 앞에서 놓치면
지체없이 서로터리까지 걷는 것을 택한다.
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걷는 편이
훨씬 빠르기 때문이다.

그저께 일요일.
탁구치러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.
집 앞의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.
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
버스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.

의자에 앉아서 폰 설정에서 셀룰러 데이터를
활성화 한 다음 밴드에 접속하여
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상쇄시켰다.
한참을 기다리니 마침내 버스가 왔다.
탑승하기 위해 교통카드 겸용인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찾았다.
그러나 주머니 속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.
깜빡 잊고 지갑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다.

<이런 망할 놈의 건망증!>

지갑을 가지러 집으로 뛰었다.
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니
210 번 버스가 신호대기 중인지 저 멀리서 있었다.
아파트 곁을 돌아서 다음 정류장으로 뛰었다.



숨을 헐떡이며 댄 덕분에
다음 정류장에서 내가 놓친 버스를 탈 수 있었다.
이로써 나는 조그마한 기록을 세웠다.
우리나라에서
교통카드가 없어 놓친 시내버스를
도로 집으로 뛰어가 카드를 챙겨 다음 정류장에서
놓친 버스를 탑승한 기록을 세운 이가
나 말고 또 있겠는가?
더구나 나는 70 노인이다. ☒

(일부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)

구독하기



민동명

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
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
행복하세요

1



흐르는 강물처럼
@민동명

건강할라고 나름 운동도 하는데
워낙 맥주를 즐기다보니 간 수치가....ㅠㅠ

1



민동명

@흐르는 강물처럼

이유를 알면 고치면 되지요

아니면 이대로 살다 조금 일찍 가면 됩니다 ㅋㅋ

행복하세요

1



박상용/64/연산동

ㅎㅎ

기록은 대단하시나

이제 겨우 70 세인데 청년이죠

성생님이 생각하셔도...

자칭 노인이라면 탁구도 안칠것이요

버스 탈 일도 만들지 않았을것이며

뛰어다닐 일도 없었을겁니다

80 심되기 전엔 스스로 노인이라는 말은 물어두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~^-^

2



흐르는 강물처럼

@박상용/64/연산동

짐짓 노인이라고 너스레를 떨면

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싫지가 않습니다.

이런 소리 들어볼라고 일부러 노인인척...ㅎㅎ

2



원영수영

밥먹다 엄청 웃었습니다. 선생님의 상황 마음 동선이 온 몸으로 와 닿습니다. 혼밥하다

품을 뺐 ㅋㅋㅋㅋ

저의 예상은 달려가셨지만 버스는 빠이빠이 했을 것 같은 짐작으로 뺏겨졌는데

성공하셨다니 놀랍습니다.

건강하십니다 ^^ 빠이팅!!



흐르는 강물처럼

@원영수영

보통 그렇게 결말이 나야 정상인데

워낙 버스 정류소 간격이 가깝다보니

이런 기이한 기록을 세울 수가 있네요.ㅎ



흐르는 강물처럼

@연수금 고맙소.. 행복하소~☆

아닌게 아니라 좀 뿌듯하긴 했지요.

70 노인이 놓친 버스를 붙잡아 타다!

별것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

희귀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^^

2



연수금 고맙소.. 행복하소~☆

@흐르는 강물처럼

당근한 말씀이지요..

요건 기네스 북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?

에헤이~*

70 노인.. 아니져..

70 어른.. 맞습니다..

그것도 초록초록한~ ^^

1



고도를 기다리며

오는버스를보고서 다음정류장까지 뛰어서

잡아타실정도면 아직,

선수급입니다.

요즘 70 세는 너무 젊습니다.

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러신듯합니다

원더풀~아빠의 청춘!

한국의 70 대,우사인 볼트 ^^*

2



나윤만

건강증만 빼시면 완벽하십니다.



흐르는 강물처럼

@나윤만

그러게 말입니다.^^

건강증이 생활전반에 스며들어

아주 미칠 지경입니다.ㅎ

1



박영순

약간 불편하더라도 버스 말고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죠?

지공거사는 공짜로 모신다니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.



흐르는 강물처럼

@박영순

지하철 노선이 달는다면 당연히

이용해야지요.

안타깝게도 지하철과는 멀어서....ㅎ



이부지랑 70

40 대나 진배없으십니다. 더 좋은 세상이 올터이니 오래도록 건강하세요